

敬命歌



[해제]

<경명가(敬命歌)>는 『강륜보감권지일(綱倫寶鑑卷之一)』에 수록된 가사 작품이다. 『강륜보감권지일(綱倫寶鑑卷之一)』은 책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에 대해 노래한 작품들을 모아 놓은 가사집이다. 이 책에는 <경명가(敬命歌)>를 비롯하여, <광애가>, <교우가>, <근신가>, <대효가>, <사친가> 등 총 28편의 가사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경명가(敬命歌)>는 교훈가사에 속한다. 이 작품에서는 가장 지극한 효는 경명(敬命), 즉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명령을 삼가 공경하여 받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다. 부모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역하지 않고 행하며, 부모님 몰래 사사로이 재물을 축적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대할 때는 반드시 예절을 지키고,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으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그 흔적을 고이 간직하는 것 등이 작자가 생각하는 효도의 근본이다. 이 작품은 『소학(小學)』의 「명륜제이(明倫第二)」 편 중 ‘명부자지친(明父子之親)’, 즉 부모와 자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과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소학(小學)』을 가사체로 풀어 씀으로써 작품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西에 가지 아니하며 朋友의게 닢 몸을
 죽임으로써 不許하며 만일 患難을 當하거던
 父母 말삼 듯고 하며 敢이 몸을 自專 말라
 父子一身 안일년가 그 財物을 私私로이
 敢이 하지 못하나니 百姓을 上下 잇심을 보라
 物을 주며 드리기를 車馬에 不及하나니
 百姓을 敢이 自專치 못할 줄을 뵈이니라
 如此하면 自重하니 子職之道 잇시리라

敬命歌

恭敬하시 恭敬하시 親命에 恭敬하시
 父母며 舅姑께 孝道恭敬 하난者난
 父母 舅姑之命을 勿逆하며 勿怠하며
 順受이 勤行호디 飮食을 주시거던
 비록 不嗜하나 必嘗하여 待命하며
 衣服을 주시거던 비록 不欲이나
 必服하여 待命하되 更命하시던 쫓고
 不命어던 服食하며 父母가일을 시기시고
 其勞를 念慮하사 남을代身 하시거던
 내비록 不欲이나 아직주어 시키다가
 能이못한 然後에 다시도로 服事하며
 矯情節僞 하지말고 委曲히 行實하시
 諸子와 諸婦난 私貨이며 私蓄이며
 私器을 두지아니하며 私假흥과 私與흥을

敬命歌

敢이하지 아니하며 婦의私親 兄弟가
飮食이며 衣服이며 布帛이며 佩悅이며
茵蘭을 주시거던 舅姑께 드리오되
受之어던 喜之하야 새로 주난것을
받난타시 하고 만일反賜 하시던
辭讓함을 하오대 用乏함을 不命어던
다시 賜之함을 奉執하난 타시하야
그되로 藏之호되 待命하야 用乏하며
만일私親 兄弟을 用乏함을 주려커던
반다시 舅姑께 그옛것을 請하야
賜之하신 然後에 用乏할걸을 주새
父母가 召之어시던 緩應을 아니하며
先生이 召之어시던 緩應을 아니하되
唯而必起 하야 執業어던 投之하고
口食어던 吐之하며 走而不趨 하게하시
大人과 言之함에 처음에난 顏色을보고
中間에난 懷抱을보고 마참에난 顏面을보되
正面하야 不改하며 이난 應答之間이니
同衆者 에게도 應對함을 如是하고
만일 아비의게난 安否如何을 遊目호되
顏面에 母上하며 帶紳에 母下하며
不言하야 계시거던 立하시던 視足하고
坐어시던 視膝하며 老親이 出어시던
方所을 不易하며 歸時을 不過하며
만일親癢 들거시던 容色을 不盛함이
이난孝子の 疏畧한 禮節이 되나니라
父沒하신 후에참아 父之書을 不讀함은
手澤이 存焉이며 母沒하신 후에참아
杯圈을 不飲함은 口澤之氣가 存焉인지
父母을 顯著케하난 至孝난 敬命코저

廣愛歌

廣愛하시 廣愛하시 道禮로 廣愛하새
父母께서 婢子와 庶子와 庶孫을
甚이 愛之어시던 비록父母 업스사도
沒身토록 敬之하야 衰殘케 아니하고
子息이 二妾을두매 父母난一人을 愛之하고

敬命歌

子난一人을 愛之어던 衣服과 飮食과
執事흠 부터을 敢이父母의 所愛와
私愛와 視偏말라 비록父母 업스사도

[현대역]

서쪽에 가지 아니하며 봉우(朋友)³¹에게 내 몸을
 죽음으로써 허락하지 않으며 만일 환난(患難)을 당하거든
 부모(父母) 말씀 듣고 하며 감히 몸을 자전(自專)³²하지 말라
 부자(父子)가 한 몸이 아니겠는가 그 재물(財物)을 사사로이
 감히 하지 못하나니 백성(百姓)을 상하(上下) 있음을 보이는 것이리라
 물건을 주며 드리기를 수레나 말[車馬]에 미치면 안 되니
 백성(百姓)을 감히 자전(自專)치 못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리라
 여차(如此)³³하면 자중(自重)³⁴하니 자직지도(子職之道)³⁵ 있으리라

경명가(敬命歌)

공경(恭敬)하세 공경(恭敬)하세 친명(親命)¹에 공경(恭敬)하세
 부모(父母)며 구고(舅姑)²께 효도(孝道)하고 공경(恭敬)하는 자는
 부모(父母)님과 시부모님의 명령을 물역(勿逆)³하며 몰태(勿怠)⁴하며
 순수(順受)⁵히 근행(勤行)⁶하되 음식(飮食)을 주시거든
 비록 불기(不嗜)⁷하더라도 반드시 맛을 보고 대명(待命)⁸하며
 의복(衣服)을 주시거든 비록 원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입어 대명(待命)⁹하되 다시 명령하시면 쫓고
 명령이 없으시거든 입고 먹으며 부모(父母)가 일을 시키시고
 그 수고로움을 염려(念慮)하시어 남에게 대신(代身)¹⁰ 시키시거든
 내가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아직 주어 시키다가
 능히 못한 연후(然後)에 다시 도로 복사(服事)¹¹하며
 교정절위(矯情節僞)¹²하지 말고 위곡(委曲)히¹³ 행실(行實)을 하세
 모든 아들과 며느리는 사사로운 재물이며 사사로운 저축이며
 사사로운 기물(器物)을 두지 아니하며, 사사로이 남에게 빌려주거나 사사로이 증여함을
 감(敢)히 하지 아니하며 며느리의 사친(私親)¹⁴ 형제(兄弟)가
 음식(飮食)이며 의복(衣服)이며 포백(布帛)¹⁵이며 패세(佩帨)¹⁶이며
 채란(蒹藺)¹⁷을 주시거든 구고(舅姑)¹⁸께 드리되
 그것을 받으시면 기뻐하여 새로 주는 것을
 받는 듯이 하고 만일 반사(反賜)¹⁹하시면
 사양(辭讓)하는 행동을 하되 용핍(用乏)²⁰함을 명령하지 않으시면
 다시 주신 물건을 봉집(奉執)²¹하는 듯이 하여
 그대로 그것을 간직하여 두되 명령을 기다려 용핍(用乏)하며
 만일 사친(私親)²² 형제(兄弟)가 필요로 해서 쓰고자 하는 것을 주려거든
 반드시 구고(舅姑)²³께 그 옛것을 청(請)하여
 그것을 주신 연후(然後)에 용핍(用乏)²⁴할 것을 주세
 부모(父母)가 부르시거든 완응(緩應)²⁵을 아니하며
 선생(先生)이 부르시거든 완응(緩應)을 아니하되

유이필기(唯而必起)26하여 잡고 있던 일이 있으면 던져두고
 입에 음식이 있거든 그것을 뱉어버리며 주이불촉(走而不趨)27하게 하세
 대인(大人)28과 말을 할 때는 처음에는 안색(顔色)을 보고
 중간(中間)에는 회포(懷抱)29를 보고 끝에는 안색(顔面)을 보되
 똑바로 마주 보아 자세를 고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응답지간(應答之間)30이니
 같은 무리의 사람들에게도 응대(應對)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하고
 만일 아버지라면 안부여하(安否如何)31에 따라 유목(遊目)32하되
 안면(顔面)에 무상(毋上)33하며 대신(帶紳)34에 무하(毋下)35하며
 말씀이 없으신 채 계시거든 서 계시면 발을 보고
 앉아 계시면 무릎을 보며, 늙으신 부모님께서 외출하시면
 나간 곳에서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며 돌아올 시간을 넘기지 아니하며
 만일 부모님께서 병이 드시면 용색(容色)36을 펴지 않음이
 이것이 효자(孝子)의 소략(疏畧)한 예절(禮節)이 되니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차마 아버지의 책을 읽지 못함은
 수택(手澤)37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차마
 배권(杯圈)38을 사용하여 마시지 아니함은 구택지기(口澤之氣)39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모(父母)님을 현저(顯著)40하게 하는 지극한 효(孝)는 경명(敬命)41이라

광애가(廣愛歌)

광애(廣愛)1하세 광애(廣愛)하세 도(道)와 예(禮)로 광애(廣愛)하세
 부모(父母)님께서 비자(婢子)2와 서자(庶子)3와 서손(庶孫)4을
 심(甚)히 사랑하시거든 비록 부모(父母)님이 없으셔도
 몰신(沒身)5토록 공경하여 쇠잔(衰殘)6하게 아니하고
 자식(子息)이 두 첩(妾)을 둬도 부모(父母)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은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의복(衣服)과 음식(飲食)과
 집안일부터 감(敢)히 부모(父母)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시편(視偏)7하지 말라 비록 부모(父母)님이 없으셔도

[각주]

- 31) 봉우(朋友) : 벗.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 32) 자전(自專) :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처리함.
- 33) 여차(如此) : 이와 같음.이렇게.
- 34) 자중(自重) :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몸을 무겁게 가짐.
- 35) 자직지도(子職之道) : 자식된 직분으로 부모를 섬기는 도리.
- 1) 친명(親命) : 부모님의 명령.
- 2) 구고(舅姑) : 시부모님(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3) 물역(勿逆) : 거스르지 아니함.
- 4) 몰태(勿怠) : 게을리 하지 아니함.
- 5) 순수(順受) : 순순히 받음.
- 6) 근행(勤行) : 부지런히 행함.
- 7) 불기(不嗜) : 좋아하지 아니함. 즐기지 아니함.
- 8) 대명(待命) : 명령을 기다림.
- 9) 대명(待命) : 명령을 기다림.
- 10) 대신(代身) : 어떤 대상의 자리나 구실을 바꾸어서 새로 맡음. 또는 그렇게 새로 맡은 대상.
- 11) 복사(服事) : 좇아서 섬김.
- 12) 교정절위(矯情節僞) : 진심을 숨기고 거짓으로 행하며, 거짓된 행동을 절개로 여김.
- 13) 위곡(委曲)히 : 찬찬하고 자세히.
- 14) 사친(私親) : 자신의 친족(親族).
- 15) 포백(布帛) : 베와 비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6) 패세(佩褱) : 허리에 장식으로 차던 수건.
- 17) 채란(菝蘭) : 향기로운 난초.
- 18) 구고(舅姑) : 시부모님(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19) 반사(反賜) : 되돌려 줌.
- 20) 용핍(用乏) : 필요로 하여 사용함.
- 21) 봉집(奉執) : 받들어 잡음.
- 22) 사친(私親) : 자신의 친족(親族).
- 23) 구고(舅姑) : 시부모님(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24) 용핍(用乏) : 필요로 하여 사용함.
- 25) 완응(緩應) : 느리게 대답함.
- 26) 유이필기(唯而必起) : 대답하고서 반드시 일어남.
- 27) 주이불촉(走而不趨) : 달려가서 재촉하지 아니함.
- 28) 대인(大人) : 덕과 지위가 있는 사람.
- 29) 회포(懷抱) : 마음속에 품은 생각.
- 30) 응답지간(應答之間) :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하는 사이.
- 31) 안부여하(安否如何) : 편안한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정도가 어떠한가를 뜻하는 말.
- 32) 유목(遊目) : 눈을 돌림.

- 33) 무상(毋上) :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됨.
- 34) 대신(帶紳) : 허리에 두르는 띠.
- 35) 무하(毋下) :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됨.
- 36) 용색(容色) : 용모와 안색을 아울러 이르는 말.
- 37) 수택(手澤) : ①손이 자주 닿았던 물건에 손때가 묻어서 생기는 윤기. ②물건에 남아 있는 옛사람의 흔적.
- 38) 배권(杯圈) : 잔과 그릇.
- 39) 구택지기(口澤之氣) : 입김.
- 40) 현저(顯著) : 뚜렷이 드러남.
- 41) 경명(敬命) : 명령을 삼가 공경함.
 - 1) 광애(廣愛) : 넓은 사랑. 폭넓고 포용력 있는 사랑.
 - 2) 비자(婢子) : 계집종. 또는 계집종의 몸에서 난 아들.
 - 3) 서자(庶子) : 첩의 몸에서 난 아들.
 - 4) 서손(庶孫) : 서자(庶子)의 아들. 또는 적자의 소실이 낳은 아들.
 - 5) 몰신(沒身) :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동안. 또는 일생을 마침.
 - 6) 쇠잔(衰殘) : 쇠하여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짐.
 - 7) 시편(視偏) : 편향되게 바라봄. 또는 한쪽 편에 치우쳐서 비교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